

보관용

September 1996

여  
래



백혈병어린이후원회

#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 마을





백혈병어린이에게 희망을! 우리들 가슴엔 사랑을!

# 새생명 통장에 사랑을 담습니다

- 기업은행 노동조합원들의 새생명 통장 나누기 운동 -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 가는 세상. 각자의 이익과 발전에 앞 다투다 보니, 뒤에서 힘들어 하는 이웃에게 눈길 한 번 주지 못한 채 살아가는 메마른 우리들의 모습뿐이다. 그러기에 기업은행 노동조합원들의 특별한 이웃 사랑 운동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온다.

“백혈병어린이돕기 1인 1구좌(1,000원) 참여운동”. 1만여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96년도 4월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백혈병어린이들의 어려움을 안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8월 현재 7,141구좌가 모여졌고, 매월 급여의 1,000원을 모아 매월 700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후원회에서는

집안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서울대, 한양대, 원자력, 강동성심, 충남대, 전남대, 경희의료원 등 7개 병원의 주치의 및 사회복지사의 추천을 받아 총 50명의 어린이를 선정하였다. 기은노조에서는 1차 지원대상으로 50명의 어린이들에게 각자의 이름으로 새생명 통장을 만들어, 매달 10만원씩 총 500만원을 후원하고 있다.

강화요법과 함께 진행되는 외래치료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 백혈병환아를 둔 어머니들의 한결같은 말씀이다. 약값 및 진료비 그리고 교통비와 식비 등을 따져보면 외래를 올 때마다 드는 비용은 7만원~10만원 정도. 외래가 잦은 탓에 특히 지방에서 병원에 다니는 환아들은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 형편이 어려운 경우 외래가 있을 때마다 아는 사람을 찾아 손을 빌려야 하는 부담이 항상 힘겹기만 하다. 일일노동자,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의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후원회에서는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한 백혈병어린이가족들의 외래치료비 부담감을 덜어 주기 위해 92년 5월부터 기업의 여직원회, 노동조합, 개인들의 사랑의 손길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아들과 연결하는 “백조(白助:백혈병어린이돕기)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27명의 어린이들과 LG화재를 비롯한 12개의 기업체 여직원회 및 노동조합이 자매결연을 맺고, 매달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10만원을 직접 송금하는 후원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의 50명 어린이 후원은 백조운동의 확대와 정착에 큰 기여를 했다. 후원회에서는 올 연말 “새생명 통장 나누기 운동”을 확대키로 하고 더 많은 후원자 및 단체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희망과 용기를 가득 담은 50개의 새생명 통장은 지난 6월 25일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암병동에서 의료진과 어린이, 부모님이 함께 한 자리에서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었다. 이게 뭐냐고 묻는 어린이에게 어머니가 대답한다. “이건 우리 아가 빨리 나으라고 기업은행 아저씨가 준 거야”라고 엄마가 뭘 말하는 건지 잘 이해되지 않는 눈치이지만, 아이들은 느낄 것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백혈병의 승리를 위한 기업은행의 사랑 실천은 이렇게 막을 올렸고, 어린이들의 완치의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 새생명 통장 나누기 운동 후원 어린이 현황

병원명	어린이명	명수
서울대학교병원	김금경 김기창 김다희 김도영	
-어린이병원	김명주 김상국 김수진 김용식	
	김진균 남효민 박제현 박한빈	24명
	배운진 안은영 이승운 이영수 이영주 이인겸 이준영 장인환	
한양대학교병원	조한태 최희찬 최예화 한민수 구모희 김상훈 박해영 서지훈	
	이규훈 이민석 진미송 최미리내 최재석 최준선	10명
강동성심병원	김민정 박지은 이광철 이태환	5명
	정미숙	
충남대학교병원	김동훈 박승규 신선영 유영수 유일근	5명
원자력병원	권순홍 배한나 송민수 윤승희	4명
전남대학교병원	최원석	1명
경희의료원	이지건	1명
	계	50명





푸른우리교실

# 푸른우리교실로 백혈병 어린이들을 초대합니다

여기는 푸른우리교실!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혈액종양센터 교육실은 어린이를 위해 아담하게 꾸며져 있다. 그야말로 병원의 한 칸이기에 보다는 초등학교 작은 교실의 아기자기한 모습이다.

이 작은 공간에서 매주 푸른우리교실의 여러 가지 교육이 이루어진다.

## 미술교실 - 제일기획 사회공헌팀

한 주의 첫교육은 화요일의 미술시간으로 시작된다. 제일기획 사원들의 열의로 벌써 1년이 되어 가는 이 교육은 그리기, 만들기, 조립하기, 꾸미기 등의 여러가지 교육내용으로 아이들의 창의력과 표현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가끔 아이들의 뛰어난 작품에 선생님들은 놀란다. 마음껏 표현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매주 링켈병을 들고, 휠체어에 기댄 체 교육실을 찾는다. 또한 아이들의 작품은 어김없이 교육 후에 한 벽면을 메우고, 뒤이어 엄마의 손을 끄는 아이들의 모습이 이어진다.

## 컴퓨터교실 - 삼성데이터시스템 수원 IS실

화요일에 이어 수요일에는 컴퓨터교육이 지루한 병실생활에서 아이들을 불러낸다. 교육을 담당하는 삼성데이터시스템 전자수원 IS실 사원들은 수원에서 2시간 정도 달려와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하며 매주 병원에 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다.

어린이들의 다양한 연령을 구분하고, 연령에 맞는 다양한 게임과 훈민정음 등의 프로그램을 교육한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컴퓨터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맞춘 선생님들은 이에 이어 9월에 훈민정음을 이용한 '예쁜 엽서전'과 '도전! 게임왕'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아이들의 손길도 분주하다. 6월에 안타깝게 우승을 놓친 어린이들이 게임왕 재도전 연습 때문이다. 5-6시까지의 1시간 교육이 아이들에게는 짧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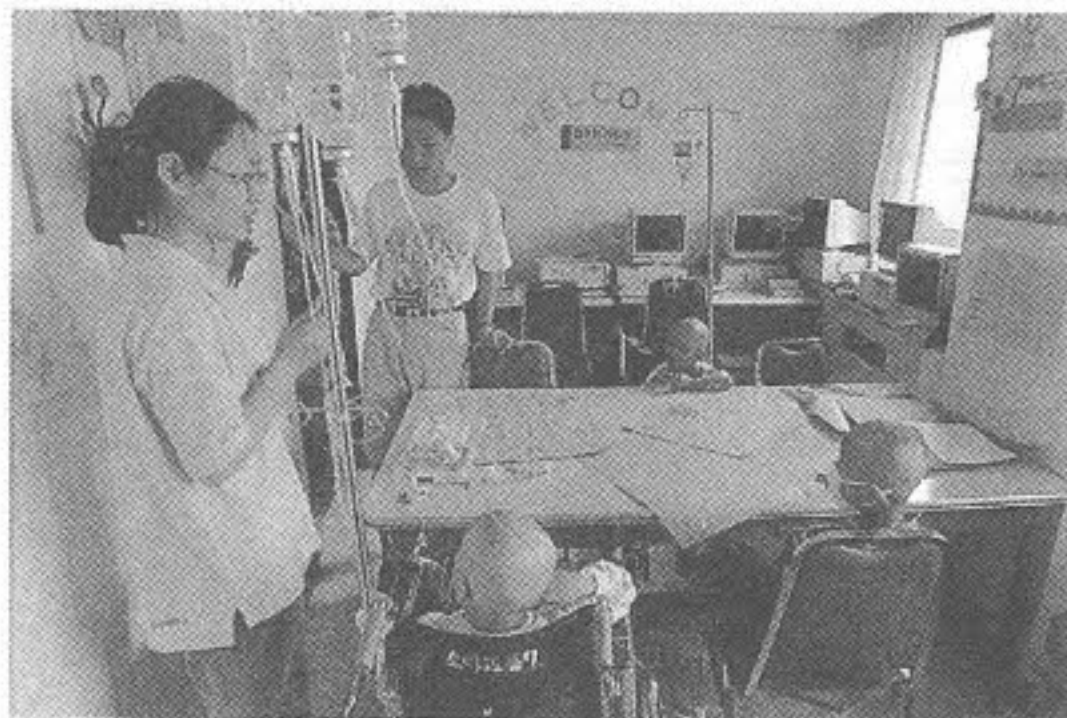
한지 끝나는 시간을 잊은 채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는다.

## 영어교실 -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

[영어나라] 금요일에는 한양대학교 재학생들이 진행하는 어린이영어교육이 있다. 만들고, 오리고, 붙이는 신바람 나는 영어로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선생님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진행되는 시간이기에 영어 단어 2개 정도를 아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교실로 모여든다. 작은 입을 벌려 선생님의 발음을 따라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여느 때와는 달리 진지한 시간이다.

푸른우리교실은 어린이들의 그늘진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웃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미술교육, 컴퓨터교육, 영어교육을 손꼽아 기다리는 백혈병 및 소아암 어린이들과 이들에게 무언가 주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으로 푸른우리교실이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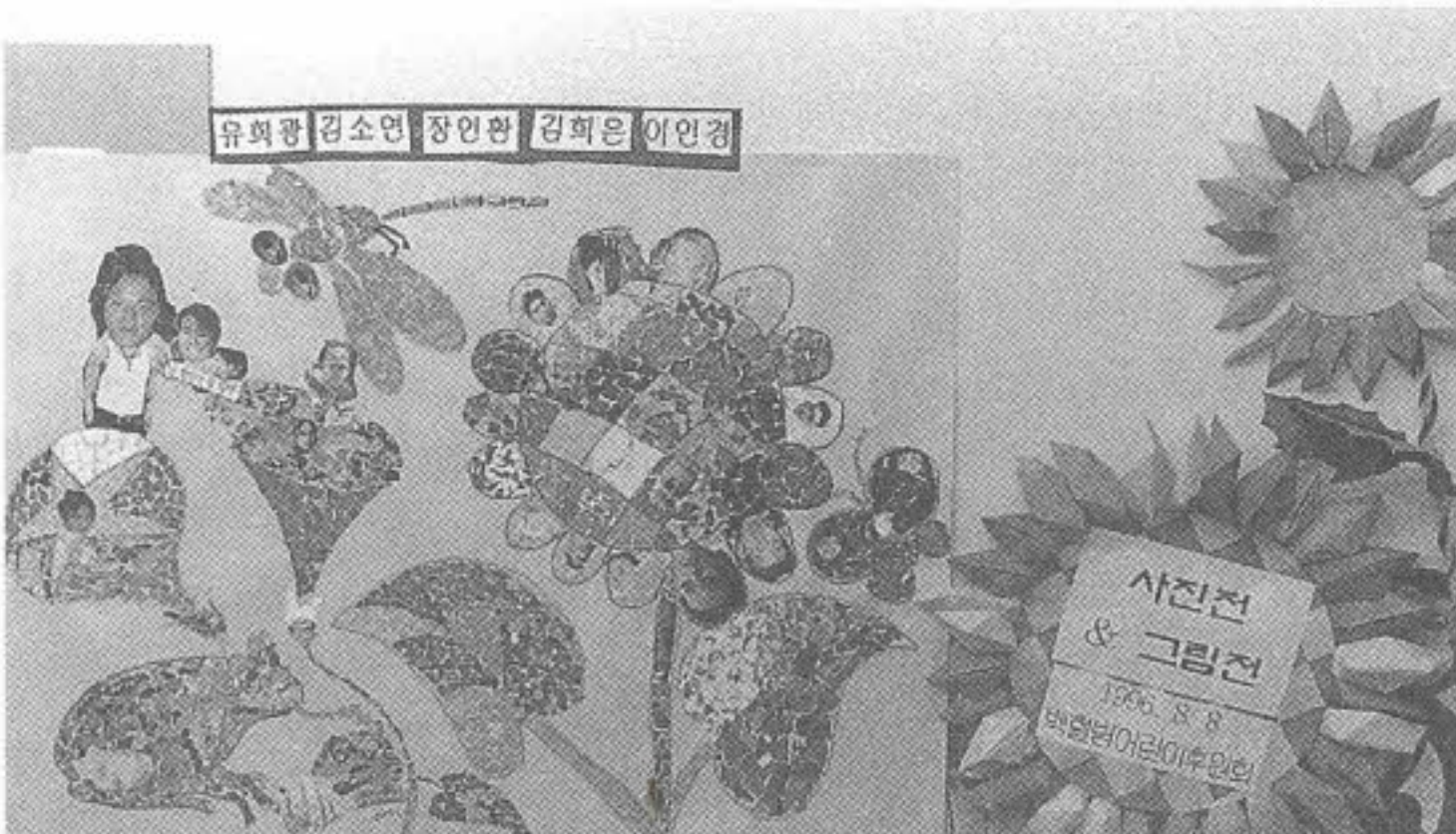
힘겨운 항암치료, 각종 검사, 악물투여 등으로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멀어진 학교와 친구들의 모습. 그 모습을 찾아주고자 푸른우리학교는 항상 밝은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할 것이다.





사진·미술 전시회

# 예쁘게 웃으세요!



7월 초부터 병실, 간호사실, 주사실을 들락거리는 아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아이들은 작은 손마다 사진기를 들고 외쳐댄다. “간호사님, 예쁘게 웃으셔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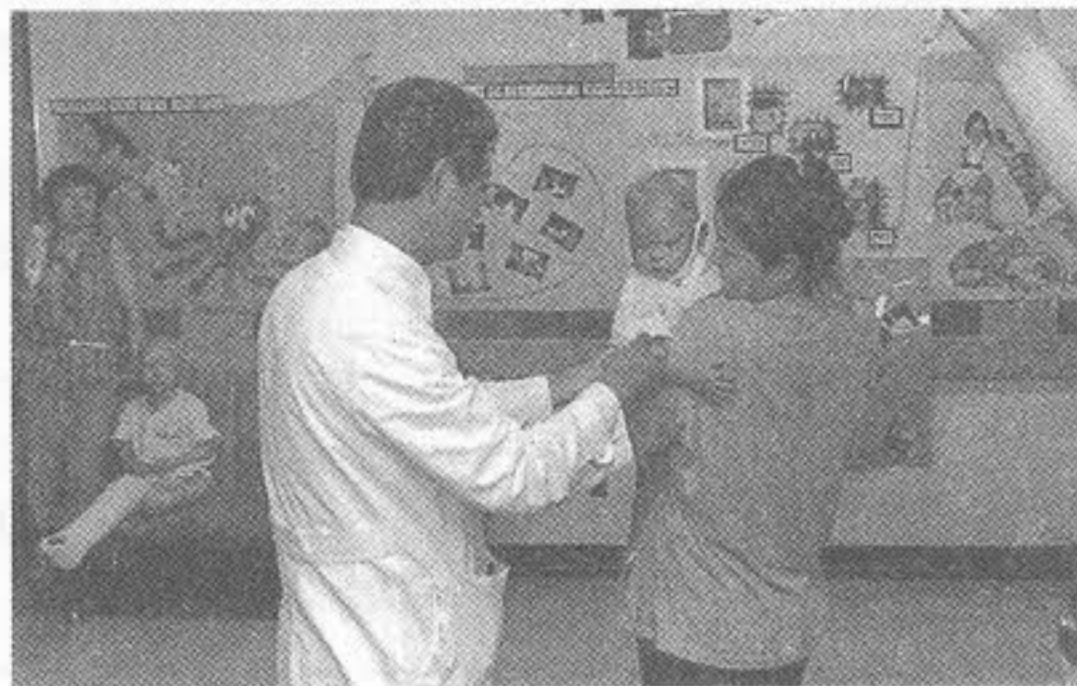
소아혈액종양센터 입원중인 어린이들이 이렇게 저마다 사진기를 들고 분주하게 병실을 누비는 것은 다름 아닌 8월 8일에 있을 사진·미술전에 출품할 작품(?)을 찍기위해서이다. 백제예술전문대학교 사진과 재학생인 이재승, 김영실 氏의 도움으로 7월 한달동안 6차례에 걸쳐 사진교육을 실시한 탓인지 아이들의 사진기를 다루는 손놀림이 제법이다.

### 8월 8일 '사진·미술전'

혈액종양센터 병실 입구에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이리저리 뛰어 다니며 찍은 사진과 미술시간에 준비한 대형 모자이크가 전시되었다. 주치선생님, 간호사님, 부모님 등 병실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이어 시상식이 있었다. 시상식은 안효섭 고문(서울대병원 소아과 교수)께서 으뜸상(유희광), 스마일상(김소현, 김수진), 화목상(오미선)의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환한 미소를 선사하였다. 인기상은 당일 참여한

분들이 별을 붙여 가장 많은 별을 받은 사진의 주인공에게 주어졌다. 인기상은 인형과 다정한 포즈를 취한 유희광과 김소현 어린이에게 돌아갔다.

사진전이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는 것 외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병동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의료진과 어린이, 어린이와 부모, 부모와 의료진 모두가 하나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더불어 사는 삶

# 천사들과의 1년을 돌아보며

함수연

( 제일기획 사회공헌 T/F팀 )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 7층. 그 천사의 영역을 알게 된지도 벌써 일년이 지났다.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아이들을 처음 만나던 날, 링겔병을 들고 찾아왔던 천사들의 맑은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오랜 투병생활로 함께 뛰어 놀 또래집단도 없이 나날이 지쳐가는 아이들에게 무얼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속에서 마련한 것이 미술지도였다. 디자이너가 많은 광고회사의 특성을 살리고 아이들의 흥미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인지 많은 관심속에서 시작됐다.

통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떠들고, 많고 번잡스러운 보육원 아이들과 달리 말수도 적고 웃음도 없는 7층 천사들은 봉사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잡고 온 엄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낮가림을 하기도 하고, 2시간 동안 “예” 한 마디만 하고 돌아 가기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낮이 익은 아이들도 많아지고, 이방인에서 언제 본 듯한 언니, 오빠로 자리매김해 나가면서 아이들은 웃음이 많아졌다. 언제부턴가 엄마없이도 교육실을 찾고, 자신의 생각도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은 이름을 써서 교육실 벽면에 붙였다. 조금은 서툴고 미흡해도 봉사자들에게는 대견스럽기만한 그림들. 가끔은 병원 밖 세상에 대한 아이들의 동경이 묻어 있어 가슴 아프기도 했었다. 크레파스와 물감을 이용하는 그림 그리기만 계속 하다보니 아이들이 싫증을 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오리고, 붙이고 만들기, 찰흙빚기 등도 함께 하기 시작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카드를 만들어 엄마, 아빠, 친구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올해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만들어 엄마의 가슴에 달아 드리기도 했다.

그 동안 함께 그림을 그린 많은 천사들이 있다. 유난히 수줍음을 많이 타던 민지, 색감이 뛰어나 칭찬을 많이 받던 희은이, 너무도 어른스러워 오히려 안스럽던 세정이 그리고 단비. 사람들의 이름을 유난히 기억하지 못하는 터라 이름들은 모두 기억하지 못하지만 눈, 코, 입, 하얀 두볼, 얼굴은 모두 떠오른다. 그 중에서도 말도 잘하고 웃기도 잘 하던 은지가 생각난다.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왔느냐는 말에 “감기가 걸려서 왔어”라고 너무나 천진스럽게 답해 눈시울이 붉히게 하던 은지. 정말 감기 낫듯이 얼른 나아서 지금보다 더 재미있게 살아 갔으면 하는 이 언니의 바람을 은지는 알까?

어른도 고통스럽다는 항암주사를 그림 그리기 시간에 맞으면 울지 않고 잘 참아서 꼭 그 시간에 맞춰 주사를 맞게 한다는 - 어느 어머님의 말이 떠오른다. 고맙다는 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 백마디보다 더 가슴 뿌듯한 말이었다.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수사를 낚은 손으로 열심히 가위질을 하면서 이름도 생소한 약이랑, 검사이름을 늘어놓은 아이들. 주사 맞기 겁나고 약먹기 싫어 울기도 하지만 티없이 맑은 아이들이기에 그런 고통을 참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천사들에게 작은 기쁨을 주고자 마음 먹은지 벌써 일년이 넘는다.

봉사활동을 한지 일년이 되는 지금, 한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그런 기쁨을 주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아이들이라는 거다. 매달 한 번 아이들을 만나고 올때마다 한아름의 행복을 안고 오는 나를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란다. 나만이 이런 기쁨을 누리는데 죄스러워 많은 동료들이 함께 했으면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바람을 덧붙이자면, 선선한 가을바람이 찾아오듯 그렇게 아이들의 병도 나았으면 한다.

선한 이웃

# 우리는 친구잖아!

금북초등학교 5학년 5반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MBC [어린이에게 새생명을....]을 보며 누구보다도 가슴이 아팠다는 전정희 선생님. 반 아이들에게 백혈병어린이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설명하고, 아이들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던 중 바자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제 작아진 옷, 싫증이 난 필통, 예쁜 악세사리, 안 쓰는 화분.... 등을 책상 가득히 모아놓고, 바자회를 열었다. 아이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 물건을 팔기도 하면서 한쪽에 선 모금을 했다. 자기가 모은 돈은 자그마한 모금함에 담겨, 김은애 어린이의 편지와 함께 후원회 통장으로 전달되었다. '우리는 친구잖아요.' 빨리 나아가서 다시 우리처럼 뛰어 놀기도 하고, 공부도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들의 바램은 진정 백혈병어린이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금북초등학교 5학년 5반 어린이들이 모은 61,750원. 이 작은 사랑은 가장 소중한 마음으로 백혈병어린이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 Special Flowers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금북초등학교에 다니는 김은애예요.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많은 백혈병 어린이 여러분께 마음에 조그마한 힘이 될까 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백혈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볼때 저는 제 자신이 백혈병에 걸린것 처럼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마음 아파 하고 있을 것 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힘을 갖고 자신의 백혈병을 고칠 수 있다고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하루라도 빨리 회복 되시기를 소망하고 걱정하는 저희들이 있으니 용기를 가지세요.

백혈병 어린이 여러분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바랍니다.

1996. 8. 17  
-여러분을 사랑하는  
김은애 올림-

© FANCY (ORB) CO. Made in Korea



백혈병을 이긴 사람들

# 고통받는 백혈병어린이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KCLF** 2주 동안 후원회 사무실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수 경** 후원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94년 말쯤으로 기억이 되네요. 이번 2주 자원봉사는 정말 후원회와 더욱 친숙해 질 수 있는 기회였고,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어요. 새로 마련된 사무실의 분위기나 일하시는 분들의 친절함으로 봉사기간에 무척 즐거웠습니다. 제가 2주동안 한 일은 현재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의 입퇴원 리스트를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이 일을 하며 느낀 것이 있다면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이 백혈병 및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또 가장 씁쓸했던 것은 리스트 정리 중 뚝뚝 튀어 나오는 “사망”이라는 글씨였습니다. 정말 너무도 많은 어린이들이 이 병으로 힘들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KCLF** 현재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다니시죠. 특별히 이 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수 경** 전 중학교때부터 장애인을 위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 해왔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초에 백혈병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굳어 졌고, 치료를 마칠 즈음 대학진학을 앞두고 망설임 없이 현재 과를 지망했어요. 물론,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사회복지학을 좋아하고 있고요.

**KCLF** 수경씨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되겠지만, 현재 치료받고 있는 많은 백혈병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수경씨의 어려웠던 그 때의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화나, TV에서나 보았던 백혈병에 내가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떠셨어요?

**수 경** 영화를 좋아하는 저에겐 [라스트콘서트], [러브스토

리] 등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백혈병으로 힘겨워하며 아름답게 죽어가는 모습이 그저 낭만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 응원단장을 매년 맡을 정도로 성격이 밝고, 몸이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인지 백혈병은 상상속이나 존재하는 병이었지요. 중학교 3학년 학기 초에 건강하던 전 기운이 없고, 출혈 등이 잦은 이유로 병원을 찾았고, 지방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신 아버지는 밤새 저와 어머니를 데리고 서울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왔어요. 제가 백혈병이라는 사실을 안 것은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었어요. 그때 처음 어머니의 눈물과 아버지의 무거운 어깨를 보았어요. 처음에 전 제 병에 대해서 부인했었어요. 그러나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인정할 수 밖에 없었어요.

**KCLF** 치료중에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 였습니까?

**수 경** 저처럼 까탈스러운(까다로운) 애도 없었을 겁니다. 유난히 합병증이 많아 무척 힘겹게 치료를 받았거든요. 치료중 당료가 검출되어 인슐린을 함께 맞아야 했어요. 백혈병 치료중인 아이들은 PD라는 약을 먹는데, 이 약은 식욕을 자극해서 아이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음식을 섭취하게 되요. 전 당료때문에 PD를 먹으면서 그 식욕을 억제해야만 했어요. PD를 먹으면서도 19kg이 감량했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이렇게 당료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또 한겹의 힘겨움이 덧쳤어요. 다리에 염증이 생겨, 수술을 두 번이나 하고, 10여년 동안 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저보다는 노령이신 어머니가 고생하셨지요. 걸지도 못하는 저를 업고 익산에서 서울대병원까지 다니셨으니까요.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다면, 학교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치료 때문에 1년을 휴학해서





## 김수경

- 1973년 6월 26일 생.
- 1988년 초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 발병.
- 1991년 12월 백혈병치료 마침.
- 현재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 재학중

후배들과 학교생활을 해야 했고, 왠지 소외된 듯한 느낌 때문에 적응하는데 무척 힘이 들었어요. 또 부유하지 못했던 집안 살림속에서 그래도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성실하신 공무원이신 덕택이었죠. 의료보험 혜택으로 간신히 치료를 마쳤지만,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는 치료라 그 동안 저축하신 모든 돈은 치료비에 쏟아 부어야 했고, 이리저리 돈을 구하러 다니셔야 했었죠. 고생이 많은 아버지의 모습에 사춘기였던 전 속앓이를 했어요. 간혹 식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때를 쓰기도 하고, 집을 나가버리기도 했었어요.

**KCLF** 수경씨가 어려움을 딛고 백혈병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때문이라 생각하세요?

**수 경** 어머니의 지극 정성때문이에요. 그 당시 저의 어머니 나이가 53세이셨어요. 노령이셨던 어머니는 모든 일을 제쳐 두고 저에게 매달리셨어요. 다리를 마음대로 쓸 수 없었던 저를 업고 병원에 다니시던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제 모습은 없었을 꺼예요. 어머니는 어려웠던 기억 때문에 가끔 멍하니 계실때가 있어요. 또 제가 백혈병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병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전 제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 그런 자신감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 제가 완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올꺼라는 막연한 생각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KCLF**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수 경**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일하

고 싶어요. 성격탓인지 모르지만 장애인, 환자들과의 생활이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전 복지시설이나 후원 단체의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백혈병이라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버릴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인정하고, 제가 경험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당당하게 어려운 이들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KCLF** 마지막으로, 현재 치료받고 있는 어린이와 어머니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 경** 아이들에게는 "힘내!" 라는 말 밖에는 없네요. 그리고 어머니들에게는 적극적이고, 어린이들에게 열린 세상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백혈병, 소아암이라는 굴레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어머니들의 역할이라 생각되요. 제가 이렇게 건강을 되찾은 것도 저의 어머니의 간절함과 적극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어머니들이 부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수경씨는 강했다.

다부진 몸과 목소리를 가진 그녀도 예전에는 백혈병과의 싸움에서 힘겨워 했던 소녀였다. 백혈병과의 싸움에서 굴복하지 않았기에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스물네살의 그녀가 있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때의 고통이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든 백혈병어린이와 어머니께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서 다시 찾아 뵙겠다고.....



훈훈한 사랑

# 작은이야기

## ♥ 엄마들의 사랑 - 뽀빠이혜미리

아이를 둔 어머니들 이기에 병고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쳐다 보는 눈길이 더 안쓰럽기만 하다는 주부 사원님의 말씀이 애잔합니다. 성덕바우만 군이 백혈병과의 싸움을 시작했을 무렵 백혈병어린이들을 돕자는 주부 사원들의 뜻이 모아지고, 전 사원의 80%를 차지하는 주부 사원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어린이 도서를 출판하는 뽀빠이 혜미리(대표 이학로)에서는 연간 7,000만원의 장학금과 매달 4,000정도의 성금을 고아원과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뽀빠이 출판사에서는 백조운동의 동참하여 후원회가 추천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류 채(여/19세/급성골수성백혈병)·강정석(남/8세/악성임파종양) 어린이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매달 뽀빠이 출판사의 모든 어머니들은 이 두 어린이를 위해 작은 성금을 모아 어린이들의 통장으로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뽀빠이혜미리에서는 또한 제일생명의 집에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비치를 위해 100만원의 성금을 후원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의 손길을 보내 오신 뽀빠이혜미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 삼성 신입사원의 사랑모음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위한 신입사원교육을 받고 있는 삼성 새내기 사원들의 사랑모음이 후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8월 17일 토요일 교육을 마치고 후원회에 찾은 두 신입사원의 모습이 힘차 보였습니다. 삼성신입사원(37기 5차/백문경, 박태현 외)들의 정성으로 모금된 ₩784,000원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자원봉사 교육을 받고, 첫사랑 실천으로 백혈병어린이들을 위해 모금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첫 월급도 못 받은 처지에서 모아 적은 돈이라며 전달하

는 겸손한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이 있기에 이 사회는 아직도 미움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사회일 것입니다. 삼성 새내기 사원분들이 이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더 많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 ♥ OPEN HOUSE 부모모임

‘제일생명의 집 오픈하우스’

백혈병어린이들의 감염 등의 위험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제일생명의 집에서 한달에 한 번을 모든 분들께 개방합니다. 오픈하우스와 함께 준비되는 부모모임에는 백혈병치료를 끝낸 부모와 현재 치료중인 어린이의 부모들, 주치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해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월 3째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이 모임은 어린이들의 백혈병 치료와 간호 전반에 걸친 내용들이 전달되어 현재 치료중인 어린이 부모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아이의 완치를 위해 더욱 힘을 내시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 ♣ 부모모임 안내

- 매월 셋째주 수요일 늦은 3시~6시
- 제일생명의 집 3층 휴게실
- 완치된 어린이 및 부모, 현재 치료중인 부모, 의료진 등
- 문 의 : 제일생명의 집 (☎ 766-7671-3)

## ♥ 사랑 더하기 - 삼성데이터시스템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삼성데이터시스템 중공업 SM사업부(실장 백재욱)에서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해오던 자원봉사활동으로 회사로부터 시상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실천한 사랑으로 얻어진 이 금액을 더욱 뜻있게 사용하자는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백혈병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저희 백혈병어린이후원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삼성데이터시스템 수원전자 IS실 직원들의 서울대병원의 봉사, 제일기획 사원들의 샘솟는 집 가꾸기 봉사 등의 여러 가지 삼성인들의 자랑스런 이웃사랑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8월 21일 삼성데이터시스템 백재욱 실장님은 안효섭 고문(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과 교수)께 시상금 100만원을 백혈병어린이들을 위해 전달하였습니다.



## ♥ 못 이룬 윤정이의 꿈을 위해...

아이의 죽음 앞에서 부모들은 무너집니다. 고통에서 허덕이던 내 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나는 순간에도 부모는 아무 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좋은 세상에서, 아픔없는 곳

에서 행복하길.....’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아이를 배웅할 뿐입니다.

윤정이의 힘겹던 투병생활과 함께 초췌해진 두 부모님이 후원회에 50만원을 전달하셨습니다. 내 아이는 하늘나라에 갔지만, 다른 아이들의 완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지길 바란다 하시며..... 하얀 미소를 보여 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묻기 보다는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희망과 사랑으로 윤정이를 영원히 곁에 두시겠다는 그 두 분에게 위로와 감사드립니다.

## ♥ 외롭지 않아요 - 신라호텔 레이디스 씨클

유난히 더운 날씨 - 백혈병과 지루한 싸움을 하여야하는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더 힘들었던 여름입니다.

그리고 아직 에어컨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제일생명의 집’ 에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귀한 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지난 7월 23일 호텔신라 레이디스씨클(회장 김순자) 회원들이 제일생명의 집과 서울대학병원 어린이병원 소아 혈액 종양센터를 방문하여 시설을 돌아보시고 따뜻한 격려와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즉석에서 모금하신 후원금 367,000원을 전달하여 주셨습니다.

그후 대학로에서 음식점(수정궁)을 경영하시는 임춘자 회원께서 아이들 생각이나 가져오셨다며 땀을 뻘뻘 흘리며 맛있는 김치를 담가오셨고 이미화 회원께서는 아이들 영어 지도와 후원회에서 필요한 영문서류번역을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초에 백혈병어린이를 위한 자선 음악회를 준비하신다는 시원한 소식도 있습니다.

정말 백혈병어린이가족들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 사랑모음터

( 새로 가입하신 후원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8/25일까지 )

## 7월

오서환, 이옥자, 이강민, 이희웅, 이은주, 박윤길, 박은희, 조명화  
백증옥, 이종민, 윤 철

## 8월

이영희

## 사랑의 헌혈증서

홍석희(43), 소효선(10), 박세만(9), 노마하(52), 김민호(50) 김진숙(1)  
권정희(1), 구강모(환아/10)

## 알립니다....

첫째, 『사랑이 있는 푸른우리마을』은 백혈병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모든 후  
원자님이 함께 만드는 회보가 되길 원합니다. 가을을 맞이해 잔잔  
한 마음을 전해 주세요. (지로용지 뒷면을 이용하여 작은 이야기를  
전해 주세요.)

둘째, 후원회에서는 후원자님들의 정성어린 헌혈증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셋째, 주소변경은 전화, 팩스, 지로용지 뒷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후원  
회 가입 및 자료신청은 후원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행인/이순형 편집인/안종남 발행처/백혈병어린이후원회(사회단체등록 서울특별시의회약  
제208호) 110-460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14-3번지 전화 : 766-7671,2 팩스 : 766-7674  
제일생명의 집(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옆 766-7671) 샘솟는 집(경기도 연천 0355-34-9981)  
예금구좌 : 310-03-002396(조흥은행) 012989-0019486(우체국) 7607451(은행지로)  
예금주 : 백혈병어린이후원회